

---

#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 투쟁의 10년(2000~2010): 21세기 벽두에 거둔 성과와 향후 과제

안드레아 다트리

안드레아 다트리(Andrea D'Atri)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다. 현재는 여성학 전문 교사이자 부에노스아이레스 마르크스 사회주의 사상연구소 젠더분과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운동을 해오며, 2003년에 결성한 여성 단체 '빵과 장미'는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로 확장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여러 곳에서 열린 페미니즘 주제 컨퍼런스와 세미나에 참가했다. 저서로는 『빵과 장미, 자본주의에서 젠더의 위치와 계급 대립』, 『투쟁하는 여자들: 역사를 만든 여자들의 이야기』(공저)가 있다.

---

## I. 들어가는 말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10년간 페미니즘은 정부기구와 학술기구, 비정부기구, 정당, 다른 사회운동과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런 맥락에서 페미니즘은 시민의 권리 획득에서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의 의미에 대한 문화적 논쟁을 통해서 하나의 운동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 복잡한 그림은 지난 수십 년간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이 걸어왔던 길의 결과이다. 그 기간 동안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국제 페미니즘운동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았다.

1970년대에 반자본주의운동 및 정치적 좌파와 대화하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기성 질서를 강력히 비판하는 반가부장적 담론에서 도출된 페미니즘은 이후 1980년대에 인권 관련 의제들과 연계되어 다시 수면 위로 등장했다.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나라에서 페미니즘은 중앙아메리카의 혁명과 반혁명의 대치, 남미 남부(Cono Sur) 지역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한 군부독재로 인해 역사적·세대적 단절을 겪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은 민주화와 그 이후의 사회적 화해 과정에서 후속 페미니즘 세대의 실천에 영향을 끼쳤고, 이제 페미니즘은 기성 질서를 부정하는 태도를 바꾸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새로운 정치 상황 속에서 1981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페미니즘 회의’부터 페미니즘운동가들의 요구는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주체인 인권으로 옮겨갔다.

1990년대에 이르는 동안 연구센터 중심의 페미니즘과 운동 차원의 페미니즘 사이의 분리는 더욱 심해졌고, 이로 인해 전문가와 운동가가 분리되었다. 전문가들은 소위 ‘젠더에 대한 기술관료적 접근’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냈고, 소수에 속하는 운동가들은 자치의 깃발을 들었다. 마루하 바리그의 지적을 보자.

고발과 강력한 담론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 1990년대에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도전에 대답해야만 했다. (...) 사회와 후원자에게 구체적인 결과, 활동 계획, 조직 내부의 일처리 방식, 조직 내부의 위계 구조에 대한 윤곽을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Barrig, 1998).

이와 동시에 국제회의에서 유엔이 부과한 규약의 영향을 받아 운동이 국제화되는 현상이 심해졌고, 이로써 비정부기구는 서서히 전문적이고 비정치화된 단체가 되었다. 비정부기구는 하층민 여성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후원자, 정부, 수혜자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으며, 비정부기구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어 운동은 더욱 파편화되었다. 국가가 공공 서비스와 국가 자원을 민영화함에 따라 비정부기구는 ‘소기업화’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기업’의 자본이란 정

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능력을 증명하는 데 있었다. 전지구적인 활동이라는 틀 속에서 비정부기구는 점차 창조력과 수원을 갖춘 하청업자가 되어, 유엔의 국제정책을 실행하고, 실험하고, 보완해나갔다 (Falquet, 2003).

반면 자치적 페미니즘은 독자성을 유지하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갔다. 의제를 선점하고 주도하기보다는 아무 후원금이나 받기를 거부하고 가부장적이라고 간주되는 기구들, 즉 정부나 정당과 함께 일하기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이었다. 자치적 페미니즘은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문화 비평에 집중해 자신들의 틀에 갇히고 방어적인 입장에 처했다는 이유로 소수파가 되어 요구사항에서도 정치색이 빠져버린 아나키스트 페미니즘, 자치적 페미니즘, 사회주의자 페미니즘과 같은 소집단들을 하나로 묶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모델의 위기와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한 대중운동으로 점철된 최근 10년간, 페미니즘은 젊은 세대의 참여와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장에 등장했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의 봉기, 2001년 12월 아르헨티나의 상황, 2002년 베네수엘라에서 쿠데타를 저지한 민중 봉기, 2006년 멕시코시티 시내에서 대통령선거 개표 부정에 항의하는 백만 시민의 집회, 오아하카 코핀<sup>1)</sup> 등은 대중을 새로운 정치적 장의 중심에 놓았고, 그곳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두드러졌다. 여성 노동자, 여성 실업자, 원주민 여성이 주역으로 등장함으로써 페미니즘운동이 다시 활성화되었으며, 과거의 가치를 되살리고 새로운 열망과 요구사항이 덧붙여졌다.

지난 10년간 다양한 국면이 전개됨에 따라 진전과 후퇴를 거듭한 페미니즘은

1) 2006년 봄 멕시코 오아하카 주에서 시작된 교사들의 파업을 제도혁명당 주정부가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이에 대응하여 오아하카 민중의회(APPO)가 만들어져 정부 권력에 저항한 일련의 상황을 지칭한다.

동은 새로운 희망과 도전, 새로운 기대와 환멸,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고, 라틴아메리카 여성의 삶에 흔적을 남겼다.

매우 다양하고 지역별 특수성이 있는 페미니즘운동의 특징을 깊이 분석하는 것이 어렵고, 또 몇몇 일반화된 이야기들만 대략적으로 제시하게 될 위험이 있지만 이 글은 최근 10년간 새로운 페미니즘운동의 경험 중 중요한 세 가지 양상에만 집중할 것이다.

- 1)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페미니즘운동이 재정치화된 것
- 2) 낙태권 투쟁이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페미니즘 의제로 지속되고, 신자유주의 이후 등장한 정권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
- 3) 온두라스의 쿠데타(2009)와 아이티의 지진(2010) 상황에서 독자적인 노력으로 제도화된 국제회의나 집회가 개최되어 페미니즘운동가들의 국제적 연대라는 새로운 경험 만들어진 것

## II. 신세대 페미니즘운동가

2001년 12월 19일과 20일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봉기는 나라를 뒤흔들었고, 페르난도 데 라 루아 정부를 무너뜨렸다. 데 라 루아 정부가 무너지기 며칠 전과 무너진 이후 몇 주 동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배고픔과 절망에 차서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지방 도시의 동네 상점과 슈퍼마켓을 약탈했다. 그런 와중에 정부가 취하려던 경제조치 앞에서 노동자들은 공장 폐쇄와 해고를 피하기 위해 공장점거를 시도했다. 중산층에 속한 많은 이들이 주민자치회를 조직했고, 어느 정도 직접 민주주의의 형식을 실현해가며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업자와 연대하였다.

이런 열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여학생과 과거의 몇몇 자치적 페미니즘 운동가들은 주민자치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여성 노동자와 여성 실업자의 요구 사항에 자신들의 주장도 넣기 시작했다. 동시에 이들은 ‘낙태권을 위한 자치회’를 만들고, 자치주의·제도권·좌파 정당의 페미니즘운동가 등, 모든 연령과 계층의 페미니즘운동가들이 들끓고 있던 사회에서 낙태권을 어떤 식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했다.

투쟁과 조직, 연대의식, 자치회의 정치적 논의가 깊이를 더해가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점거한 도시 한복판의 브루크만 섬유 공장<sup>2)</sup>은 상징적 존재가 되었고, 공장은 주민자치회와 다른 사회운동, 특히 젊은 여성이 주축이 된 페미니즘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경찰의 억압을 견뎌고, 동일한 상황에 있던 다른 노동자들과 국내 모임을 조직했으며, 세 번의 철거 시도에 저항했다. 마지막 철거 시도가 있었을 때는 야외의 텐트에서 몇 달을 보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페미니즘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례가 되었고, 여러 달 동안 투쟁하고 있던 여성 섬유노동자들의 주변으로 페미니즘운동가들이 모여들었다. 브루크만 여성 노동자들이 준비한 만남의 장에서는 경험을 공유하고 낙태권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여성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고, 그때 ‘낙태권을 위한 자치회’와 여성 노동자들이 점수한 브루크만 공장은 자연스럽게 연대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전역을 지배하던 자치회 설립 분위기 속에서 페미니즘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집단적인 생명력을 되찾았다. 페미니즘운동가들은 여성 노동자들이 점거한 브루크만 공장을 지지하기 위해 거리행진을 하거나 주민자치회에

2)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발바네라에 있는 섬유공장으로서 2001년 12월 18일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에 공장 폐쇄의 위기 속에서 사주가 버리고 떠난 공장을 여성 노동자들이 맡아 운영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12월 18일’이라는 이름의 노동자조합이 자주관리하고 있다-옮긴이.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전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대중운동에서 고유의 구호를 앞세워 행진했다. 또 여성 건강이나 실업자운동을 하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방지하자는 주제 등으로 워크숍을 꾸렸다. 이런 경험은 “광장과 집과 침대에서 혁명을 성취하려는” 젊은이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모임과 집단, 운동이 번창할 수 있는 적절한 토양이 되었다.

정치권의 모든 기구가 심판대에 올랐던 이 특수한 시기는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정부의 집권으로 마무리되었다. 경제위기 시기에 일어났던 운동을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부패한 정부기구를 재편하였고, 내부인으로 인사를 채우는 호선제도 개선하였다. 정부의 이런 선제 조치는 실업자운동과 인권 단체 등에 영향을 미쳤고, 페미니즘 역시 이에 무관할 수 없었다. 그런 와중에 많은 페미니즘 그룹은 요구사항을 대통령궁에 위임하고 사라져갔고, 몇몇 페미니즘 그룹은 정부 조직에 통합되어 새로운 모습을 갖추었다. 이런 흐름에 반대하는 그룹도 있었는데, 이들 그룹은 이후 몇 년 동안 과거의 요구사항과 새로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주도했으며, 이런 투쟁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다른 나라로 확장되었다.

전 세계의 운동가, 학생, 전문직 종사자, 예술가, 사회·정치 단체들이 아르헨티나의 이런 경험을 알고 공부하기 위해 방문했다.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운동가들은 남미 남부지역으로 시선을 돌려 새롭고 적극적인 페미니즘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 운동은 많은 이들에게 ‘여성의 세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지난 10년간 남미 남부의 여성 그룹들이 통신 기술 발전과 SNS의 도움을 받아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 및 여성 그룹과 연대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것은 최근 10년간 페미니즘운동의 새로운 성과였다.

### Ⅲ. 낙태권, 대중적 공감을 얻었으나 정부는 거부한 사안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낙태가 여전히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시술이기 때문에 낙태 비범죄화 요구는 최근 10년간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운동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진 의제였다. 낙태 비범죄화 요구가 여러 해 동안 지속된 근본 이유는 비밀 낙태 시술이 라틴아메리카 여성의 사망 원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 성과 임신·출산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국제법 조항이 낙태 합법화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회와 여러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지향을 가진 라틴아메리카 정부는 수백만 라틴아메리카 여성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페미니즘운동가들은 낙태권 확보 투쟁을 전개하여 상당한 공감과 동조를 얻어냈고, 이를 일반적인 의제로 만들겠다는 생각에 신자유주의 이후 등장한 신정부에게 선부른 기대를 걸고 로비와 윗선의 협상을 중시함으로써 그동안 성취해 온 운동 능력을 축소시켜버렸다. 새로운 정치체제와 정부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변화는 미미했고, 오히려 퇴보한 경우도 있었다.

다양한 성향과 기원을 가진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운동가들은 낙태권 투쟁을 위해 이견을 조율하고 정치적 차이를 극복하면서 협력해왔다. 이런 협력은 낙태 합법화 진척을 위한 전략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낙태권에 반대하는 반동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세력에 맞서고자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다.

아직도 수백만 라틴아메리카 여성들은 낙태권을 얻지 못했지만 최근 10년 동안은 라틴아메리카의 지속적인 페미니즘운동 덕분에 낙태권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시화된 시기였다.

낙태권 논쟁의 성과는 무엇이고, 전망은 어떠한가? 이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논쟁 중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라틴아메리카 몇몇 나라의 사례는 낙태권이

아직도 격렬한 논쟁의 주제라는 것을 증명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여전히 강력한 가톨릭교회와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세력은 쉽사리 양보할 의사가 없으며, 정부를 압박하고 피해자 여성들과 페미니스트 여성을 법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 IV. 어제의 게릴라들이 오늘은 열렬한 낙태반대주의자가 되다

엘살바도르에서 오랫동안 집권한 우파 정당 ‘민족주의공화연맹’은 1973년 제정된 치료적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조항을 1998년도에 폐지하여 낙태를 금지했고, 여성들은 야당 ‘과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이 정권을 잡자 상황 변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하던 변화는 없었고, 낙태법은 바뀌지 않았다.

최근 ‘여성 발전을 위한 엘살바도르 기구’(ISDEMU)를 맡고 있던 홀리아 에벌린이 낙태법을 수정하려 하자 마우리시오 푸네스 대통령은 행정부의 명령이 없었다며 신문기사를 반박했다. 대통령은 “나는 그 어떤 명령도 내린 적이 없으며, 낙태에 관한 입법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적도 결코 없습니다.”라고 밝혔으며, 한 국제단체의 낙태법 개정 찬성 선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홀리아 에벌린을 해임했다.

니카라과에서는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의 다니엘 오르테가가 세 번의 선거에서 패배한 후 두번째 집권을 노리며 선거운동을 할 때, 오반도 주교를 내세운 우파(니카라과 사회의 가장 반동적 세력)와 손을 잡았다.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 1891년부터 당시까지 지속되어온 치료적 낙태의 불법화에 찬성한다면 가톨릭교회가 다니엘 오르테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2006년 대선 이전 의회는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과 우파가 만장일치로 치료적 낙태를 불법화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다니엘 오르테가는 대선에서 승리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은 ‘생명에 찬성하고, 낙태에 반대한다.’라는 제목으로 반낙태 담화문을 발표한 유일한 정당이었으며, 당시 볼라노스 대통령의 보수 정권이 지지하고 가톨릭교회가 주도한 ‘낙태 반대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통령에 취임한 뒤 다니엘 오르테가는 페미니스트 운동과 니카라과에서 낙태권 투쟁을 하는 이들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낙태권을 지지하는 비정부기구를 핍박하고 단체의 법적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위협을 하기도 했다. 잘 알려진 페미니즘운동가 아홉 명은 치료 목적의 낙태가 합법이었던 시절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소녀의 낙태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범죄 혐의죄 혐의로 니카라과 법원에 기소되었다. 이런 조치들로 여러 나라 페미니즘운동가들은 연대하여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다니엘 오르테가가 온두라스에서 과라과이까지 각 나라를 공식 방문했을 때 지역 페미니즘운동 단체는 방문 반대 시위를 벌였다.

## V. 남미 남부지역의 거짓 진보주의

칠레에서는 피노체트 독재정권이 치료 목적의 낙태를 폐지한 이후 모든 낙태가 불법이 되었고, 칠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던 미첼레 바첼레트 정부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2007년 1월 바첼레트 대통령이 응급 사후 피임약의 무상 공급을 승인했을 때,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고 칠레 가톨릭교회와 우파는 반대 움직임을 주도했다. 반대파는 대통령의 결정을 무효로 되돌려놓을 수는 없었지만 논의가 낙태권으로 확장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우루과이 정당 확대전선(Frente Amplio)의 첫 대통령 타바레 바스케스는 매우 즐겁고 기대감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그의 조치는 페미

니즘운동가들을 놀라게 했다. 우루과이 의회는 2008년 ‘성과 임신·출산 건강법’이라는 법률안을 승인했는데, 이는 여성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하거나 임신 12주가 지나더라도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태아의 기형으로 인해 태어난 뒤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낙태를 비범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은 한때 낙태권 투쟁에서 남미 남부지역의 페미니즘운동가들이 따라야 할 선례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의사 출신의 대통령 타바레 바스케스는 보건부장관의 건의로 이 법안을 거부했고, 가톨릭교회는 그 법안을 지지하는 모든 공무원을 파문하겠다고 위협했다.

## VI. 자신의 운명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여성들을 통치하는 여성들

아르헨티나에서는 2003년 9월 ‘낙태 비범죄화를 위한 투쟁의 날’을 기념했고, 수천 명의 여성이 참석했다. 하지만 낙태권 투쟁을 하던 여성 운동가들은 이미 정치적 입장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다수파는 막 집권한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정부를 압박해 ‘위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고, 소수파는 아래로부터의 독자적인 운동을 주장했다. 당시 보건부장관은 낙태 비범죄화에 대해 활동가들의 기대치를 높이는 진보적인 담론을 채택했고, 당시 상원의원이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는 이 사안에 대해 그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않을 것을 바티칸 당국에 약속했다.

다음 해 ‘제1회 낙태권 확보 전략 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국내 코디네이터를 선정하고 법률안을 만들며 낙태권을 지지하는 여성 하원의원 모임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일 년 뒤 이 제안은 낙태권을 위한 전국 캠페인을 시작함으로써 절정을 이루었고, 다양한 세력, 여성 단체, 다양한 공간의 페미니즘운동가들을

하나로 묶었다. 이 캠페인은 무료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청원서 서명운동부터 시작했는데,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수천 명의 동조를 얻었다. 청원서는 일 년 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사천 명이 넘는 여성들이 모여 시위하며 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때 한 단체가 ‘키르츠네르 정부하에서 우리 여성들은 비밀 낙태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구호를 내걸고 레즈비언 페미니즘 단체, 자치주의 페미니스트 단체, 캠페인의 방향과 노선에서 상충하던 좌파 정당과 연계된 단체를 하나로 단합시켰다.

그다음 해 이 캠페인으로 단합한 연합체는 한 정부 관료의 ‘낙태는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운동을 조직해나갈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이후 몇 년간 의회에 대한 로비와 언론을 통해 점차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지만 캠페인이 제안한 운동과 실천은 소수 그룹에만 국한되었다.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정부의 뒤를 이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는, 거의 모든 계파의 남성과 여성 국회의원들이 다음 회기에 캠페인을 통해 제출된 법률안을 처리하겠다는 지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한 상황을 무시했으며, 대통령은 이 논의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했고, 가톨릭교회 지도부는 이를 흡족하게 받아들였다.

브라질에서도 노동당 정부가 갖게 한 기대감과 낙태권에 대한 실제 약속 사이의 간극은 다른 나라들과 유사했다. 2002년 총선을 치르며 의회 내에서 종교계의 힘이 커졌고, ‘프로라이프’를 표방한 단체들의 영향력이 증가해 비밀 낙태 시술을 했던 여성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최근 2005년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세 당이 참여한 한 위원회에서 낙태 비범죄화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정부는 이를 의회로 보내 회기에 다루도록 했다. 하지만 브라질 주교협의회의와 다른 개신교 종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정

부는 이 발의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와 동시에 ‘생명을 수호하고 낙태에 반대하는 의회 전선’이 만들어졌다.

2007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브라질을 공식 방문한 뒤 룰라 다 실바 정부는 수태 순간부터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고 생명권 수호를 구호로 내세운 브라질 주교협의회의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지지했으며, 2008년 최종적으로 브라질 정부와 바티칸 당국은 공립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강화하고 낙태권에 반대하는 종교적 입장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에 서명했다. 또한, 의회의 낙태 반대파들은 낙태 관련 물품 불법 거래와 낙태권을 옹호하는 페미니스트 단체들의 활동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다.

2010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2008년 여러 운동가들과 단체, 사회운동, 낙태권을 지지하는 하원의원들이 만든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는 국내 연합’은 자신들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근본주의자들과 우파의 압력 앞에서 노동당 후보였고 현 브라질 대통령인 질마 후세피는 광범위한 가톨릭 층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 낙태권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만 했고, 선거기간 동안 낙태권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일어났다. 브라질 페미니즘운동가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공약을 내걸고 캠페인을 치르던 중 질마 후세피 후보는 현행 낙태법을 유지하고 가족제도에 대한 입법을 수정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 VII. 낙태 비범죄화의 섬

이 시기 유일하게 예외적인 경우는 아마 멕시코일 것이다. 페미니즘운동의 오랜 투쟁 이후 2007년 멕시코시티 시의회는 낙태를 처벌하던 형법 조항의 개정을 승인했다. 이 개정은 멕시코시티를 통치하던 중도 좌파적인 민주혁명당(PRD)의 추진으로 이뤄졌고, 임신 12주 내의 낙태를 허용하며,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만 중절수술을 허용하던 기존의 법을 확장해 태아에 심각한 기형이 있거나 산모의 건강이 위협할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게 되었다. 여당이었던 보수성향의 국민행동당(PAN)만이 이 개정에 반대했고, 민주혁명당의 법안에 다른 정당도 동조했다.

하지만 입법을 위한 전투의 승리는 쉽지 않았다. 법률 개정은 곧 근본주의자들과 종교 세력에 의해서 비난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법률 개정을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법안이 통과되자 멕시코시티가 취한 이 결정에 대한 반발로 가톨릭 교회가 국민행동당과 반낙태운동단체들과 함께 개정안을 만들어 멕시코의 여러 주는 낙태 관련법을 더 강화해버렸다. 이렇게 개정된 몇몇 법조항은 현재 수정된 난자를 법률적 인격체로 간주함으로써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이 반동적인 선회로 인해 다양한 단체의 페미니즘운동가들과 운동들, 그리고 인권운동을 하는 여성들은 ‘여성들의 생명, 자유, 권리를 위한 협약’을 만들었으며, 협약은 멕시코의 모든 주로 낙태권 입법을 확장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임신중절을 했다는 이유로 멕시코 감옥에 수감된 십수 명의 여성 석방을 위해 투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VIII. 국경을 넘는 페미니즘운동가들의 연대

2009년 6월 온두라스 의회는 대법원, 군대, 가톨릭교회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 합법적으로 집권한 마누엘 셀라야 정권을 전복하려 했다. 라틴아메리카 전역의 대중 매체를 통해 이 소식이 퍼져나가는 동안 SNS에서는 사태에 대한 다른 시각이 유포되었다. 이메일과 대안 매체에 등장했던 초기의 목소리들 중에는 ‘저항하는 페미니즘운동가들’이 있었다. 이 단체는 온두라스의 여러 비정부기구의 여성들 모임으로 작가, 전문직, 대중운동 활동가들이 모여 정보의 장벽을 극복하고, 국경을 넘어서 라틴아메리카 전역의 페미니즘운동가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이런 대안적 목소리는 다리를 접거해 길을 막은 엘 프로그레소 마을 주민을 군대가 공격해 20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4천 명이 넘는 시위대를 군대가 해산시켰지만 다음 날 거리를 점거하기 위해 주민들이 다시 나왔다는 등의 소식을 대중매체보다 먼저 알리고 고발하는 역할을 했다. ‘저항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정보를 세상에 알리는 동안 쿠데타에 동참한 여성들은 ‘낙태에 반대하는 연합’을 중심으로 결집했다.

또한 고립의 극복은 지리적으로 먼 곳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온두라스 여성들은 아르헨티나 사회운동 단체인 ‘빵과 장미’가 보낸 연대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자신들의 정보가 쿠데타 주동자들이 만든 장벽을 넘어 전해졌으며,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메시지는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단체와 활동가에게 전달되었고, 클라라 체트킨 여성운동<sup>3)</sup>, 베네수엘라 센트랄대학의 여성학 연구센터,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의 페미니

3) 2002년 베네수엘라에서 여성운동의 선구자인 클라라 체트킨의 이름을 따서 만든 운동-옮긴이.

즘운동가들, 아르헨티나의 비성차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자 네트워크, 페타테라 운동의<sup>4)</sup> 코스타리카 회원들, 다양한 나라에 지부를 둔 세계여성행진과 같은 여러 나라의 페미니즘운동가들이 이를 모방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저항하는 페미니즘운동가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쿠데타에 반대하는 소책자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인터넷으로 단체와 접촉하던 여성운동가들에게 이메일로 책자를 보냈으며, 이를 받은 운동가들은 다시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했다. 다시 억압이 심해지자 온두라스 여성 활동가들은 테구시갈파 거리로 시위를 나섰고,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운동가들에게 각자 자기 나라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할 것을 요청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리마, 칠레 산티아고, 상파울루, 멕시코시티, 카라카스, 키토, 온두라스와 국경을 접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의 페미니즘운동가들은 ‘우리들 모두가 온두라스 여성들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 40일 뒤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의 페미니즘 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테구시갈파에 모였고, 쿠데타 발발 이후 온두라스 여성에게 가해진 인권유린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목적으로 ‘온두라스 여성 권리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후 몇 달 동안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온두라스 방문, ‘저항하는 페미니즘운동가들’의 회원들이 외국에 나가 자신들의 투쟁과 단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경비를 조달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온두라스 민중이 겪은 어려운 상황을 통해 예전에는 서로 알지 못했던 페미니즘 그룹과 운동, 운동가들 사이에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내실 있는 교류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 경험을 통해 페미니즘

4) 페타테라 운동(Petateras):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멕시코, 파나마, 코스타리카, 미국의 여성들로 구성된 페미니스트 단체-옮긴이.

운동가들은 1년 뒤 아이티에서 일어난 지진 참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

2010년 지진은 아이티의 구조적인 빈곤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 점령하에서 여성들이 처한 폭력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운동가들은 재난에 신속히 대응했으며, 아이티의 여성 운동가들이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구조와 물자 배급에 참여하는 동안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는 지진 상황에 대해 단합을 촉구하는 성명이 확산되어 여성 단체, 페미니즘 단체, 성적 소수자와 레즈비언 단체, 여성 노동조합 위원회, 인권, 학생, 노동자운동 단체의 동조를 얻어냈다.

그 성명은 유엔 다국적군 주둔을 비판하고, 아이티 민중과 연대하는 사회운동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거대한 초국적 기업이 이윤을 줄이더라도 식량, 약품, 연료, 재난 대처에 필요한 소모품을 제공하고, 여성 단체, 페미니즘 단체, 인권 단체가 물자배급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은 라틴아메리카 15개국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동조를 얻어냈다. 온두라스 쿠데타 기간 동안 형성되었던 네트워크는 아이티 여성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비극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코스타리카와 도미니카공화국의 페미니즘운동가들은 국제 페미니스트의 연대를 위한 거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이티 국경 지역에 캠프를 꾸렸다. 또한 그곳에 ‘국제 페미니즘 라디오’를 설치하여 대안 매체에 정보를 제공하였다. 캠프는 지진으로 사망한 아이티 페미니즘운동가들의 삶을 기리는 성명서를 국제 여성의 날에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보냈다.

— 정승희 옮김

원제와 출처

“2000-2010: una década de luchas feministas. Logros y deudas pendientes con las mujeres latinoamericanas en los albores del siglo XXI”, *OSAL*, Año XII, N° 30, noviembre, pp. 111-124.



## 참고문헌

- Barrig, Maruja(1998), “Los malestares del feminismo latinoamericano: una nueva lectura”, ponencia presentada en el Encuentro de la Asociación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de Chicago, del 24 al 26 de octubre.
- Cárdenas, Leonor(2010), “Presidente Funes asegura no haber ordenado revisar legislación en materia de aborto” en Co-Latino (San Salvador), 25 de agosto.
- Clarín(2006), 20 de mayo, Buenos Aires.
- D’Atri, Andrea(2007a), “Nuevas encrucijadas para el feminismo del siglo XXI” en Henríque, José (comp.) *Los ’90: fin de ciclo. El retorno de la contradicción*, Buenos Aires: Final Abierto.
- D’Atri, Andrea(2007b), “Repolticization of the Women’s Movement and Feminism in Argentina” en Alpízar Durán et al. (ed.) *Building Feminist Movements and Organizations. Global Perspectives*, Londres: Zed.
- D’Atri, Andrea(2010), “El feminismo y la crisis mundial” en Martínez Alonso, G. y Martínez Toledo, Y. (comps.) *Emancipaciones feministas en el siglo XXI*, La Habana: Ruth.
- Falquet, Jules(2003), “La ONU ¿aliada de las mujeres? Un análisis feminista del sistema de las organizaciones internacionales” en *Multitudes*, N° 11, París.
- Freitas, Angela(2011), *Aborto: guia para profissionais de comunicação*, Recife: IPAS.
- Gargallo, Francesca(2006), *Ideas Feministas Latinoamericanas*, Caracas: El perro y la rana.
- Gómez, S. y Blandón, M.(2007), *Los rostros detrás de las cifras: los efectos trágicos de la penalización del aborto terapéutico en Nicaragua*, Managua: IPAS.
- Vargas Valente, Virginia(2008), *Feminismos en América Latina. Su aporte a la política y a la democracia* Universidad Nacional, Lima: Universidad Mayor de San Marcos.
- Zapata Galindo, M.(2002), “El movimiento feminista en México: de los grupos locales de autoconciencia a las redes transnacionales”, Femenías, M. L.(comp.) *Perfiles del feminismo iberoamericano*, Buenos Aires: Catálogos.